

2016년 두 번째 호 (통권 15호)

별마을 ocean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성촌의집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 있는 삶을 돋고 있습니다.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Love Letter 편지왔어요~

from. 권소진 님

팔 다치고 나서 고생이 많아요. 많이
답답해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속상했
는데 이제 다 나아가서 다행이예요.
올해 할 고생은 미리 다 했나 봐요. 이
젠 좋은 일만 생기길!^^

to. 고영희 님

from. 고영희 님

감사합니다. 밥도 먹여주시고, 다 씻
겨주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
니다.

to. 태은실 님

from. 김수진 님

자신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좋아하시는
'적극 근택님'...우리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말에도 관심을 갖는
'Zen to 근택님' 기대해요~

to. 장근택 님

from. 이경숙 님

팀장님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다
시 한 번 감사합니다.

to. 김수진 님

from. 태은실 님

선생님과의 인연이 오래 된 듯 편안
함과 아늑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
자 성격 같으면서도 엄마의 따뜻함을
가진 이경숙 위생원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잊지 않
겠습니다.

to. 이경숙 님

from. 장근택 님

내 생일 때 같이 커피숍에 가서 차 마
시며 이런저런 이야기 해줘서 고맙습
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랑 얘기해주
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
야기 하고 싶어요~

to. 김기철 님

from. 김기철 님

황정배 복지사님 힘들고 피곤했던 날
에 밝은 웃음과 함께 주었던 조그마
한 간식을 통해 그 하루를 값지고 활
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
하며 에너지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to. 황정배 님

성촌의집 어벤져스 [고충처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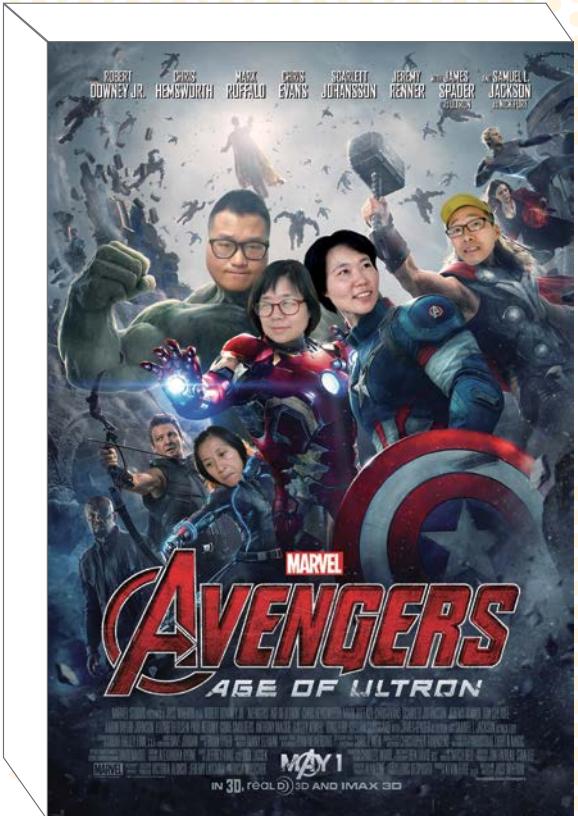
HELP!



우선, 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장인 김용애 건강지원팀 팀장(아이언맨), 김미경 이용자(블랙 위도우), 박명숙 간호사(캡틴 아메리카), 이영우 이용자(토르), 이재식 사회복지사(헐크) 이상 5명은 성촌의집을 수호하는 어벤져스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성촌의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 정서, 관계 등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고충처리 절차

고충발생 및 접수(소리함을 통한 개인 접수, 남녀 이용자회의를 통한 접수) ▶ 고충처리위원회 1주일 내 회의진행 ▶ 현황파악 (사실내용파악) ▶ 고충처리위원회 처리건, 기관에서 처리건 분류 ▶ 시설 내 불편사항 및 단순 고충사항 구분하여 15일 이내 해결 ▶ '소통의날' 관련사항 내용 공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속에 많은 고충이 있지만 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자치회의를 통해 규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촌의집 가족으로 함께하기 위한 작은 질서, 우리가...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우리는 행복합니~^^**



별마을 가족의 날

장애인의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 별마을 가족의 날!



4월 19일(화), 부천 자연생태공원 툴립축제



4월 20일(수), 제36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



4월 22일(금), 23일(토), 25일(월) 장애인의날 의미와 우리 동네에 대한 의견(생각)을 나누고 내가 바라는 성촌의집을 포스터로 표현



별마을 가족들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는 휠체어로 가게를 이용하기에 입구와 통로가 좁아 가게 안을 들어가서 물건사기가 어려운 점 말고는 사람들이 인사를 잘해주고 친절해서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랍니다~^^

그리고 제작된 포스터 이미지는 별도 업서로 제작 및 배포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어요?^^



최새롬 | 사회복지사

와 ~ 여름이다!!



2016년 별마을 여름 휴가



어느덧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다들 날도 더운데 전기절약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일하라, 공부하라 수고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바닷가...물놀이...휴가...여행...생각만으로도 기분이 UP되지 않으세요??^^

별마을 가족들도 여름을 맞이하여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장소, 일정, 교통편 등이 사전에 정해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 바다가 좋은데!!”, “난 계곡이 좋은데!!”, “여행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여행은 별마을 가족들이 직접 모든 일정을 계획해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근!! 두근!!^^

첫 번째로, 우리는 다양한 여행지 중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거제도



경주



김해



부산



제주도

참! 다양한 여행지가 나왔죠?? 하나 같이 여행가기 딱!! 좋은 장소이지 않나요??

두 번째로, 각 그룹별로 모여 언제 떠나고 언제 올지? 어떤 것을 먹을까? 관광코스는 어디로 할까?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역시 회의에서 의견 조율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지만 서로 양보하고...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통일된 의견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여름 휴가계획을 세우셨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떠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천광역시장상 수상

제36회 장애인의날 맞이하여 성촌의집 최우수직원으로 성촌의집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장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촌의집 직원으로서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장상을 받게 해주신 성촌의집 직원 및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미복 사회복지사]



별마을 우체통



실습을 마치고...

성촌의집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한 실습생 이미현입니다. 성촌의집에 갈 때마다 가족분들이 반겨주시고, 기억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답답할 것 같았는데 외부활동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공원도 가고, 고양꽃박람회, 서울대공원 나들이까지 흥 함께했던 추억들이 스쳐갑니다. 이곳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한분 한분이 살아가는 '집'이라는 점, 가족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등을 보면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성촌의집에서 봤던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촌의집 가족분들의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미현 실습생]



정년퇴직을 앞두고



차가운 겨울을 넘어 초록빛 봄이 지나고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1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렇게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감개무량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중 가장 기뻤던 순간이 문득 떠오릅니다. 성촌의집 가족 중 한명이 언어표현이 적었을 때 다른 주변 사람들을 '아줌마', 혹은 '아저씨'라고 불렸었는데 저에게 '엄마'라고 불렸을 때와 제가 일을 하며 힘들어 할 때 한 가족분이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등을 턱탁 쳐주었을 때 마음속에서 뭉클한 느낌과 함께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성촌의집 가족님들이 저에게 준 수많은 감정과 표현들이 오랜 시간동안 제가 성촌의집의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동안 성촌의집의 환경이 많이 변하며 개선되었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젊고 활기찼던 가족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자립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자와 직원을 떠나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만으로 정말 근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성촌의집 가족들과 이사장님, 원장님, 그리고 항상 옆에서 함께 해주는 동료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성촌의집 구성원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성촌의집의 직원으로서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생활지원교사]

별마을그림일기



오늘은 내 생일이다! 생일이라 순대랑 떡볶이 등 맛있는 음식을 샀다. 언니들과 함께 먹어서 평소보다 더 맛있었다. 영희언니는 내가 먹여줘서 더 맛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모두 함께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 가서 나는 현주랑 같이 노래를 불렀다. 언니들도 불렀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 우숙언니는 옆에서 신나게 템버린을 흔들면서 춤을 췄다. 모두가 함께하니 더 즐거운 생일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오늘은 노래방을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방을 다녀왔다. 5명이 모여서 갔는데 음료수도 시키고 즐겁게 놀았다. 평소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듀엣으로 같이 부르기도 하였다. 다 같이 노래방에 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껏 소리 지르니까 가슴이 뻥뻥 뚫리는 것 같았다. 다음에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와야겠다.



아~ 버스가 안온다. 조금 전에 출발했나?? 이러다 늦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버스가 금방 와서 지각은 하지 않았다. 요즘은 날이 더워서 버스에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다. 가끔은 버스에서 내리기가 싫다ㅋㅋ 오늘도 난 버스에 몸을 맡기고 출근을 한다. 기사님!! GO! GO!



다른 가족들처럼 바삭한 턱김을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동생이랑 치과에서 의사선생님께 상담도 받고 진찰도 받았다. 진찰 결과는 우려했던 것처럼 상태가 좋지 않다~~ 하지만 열심히 치료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 힘이 난다!!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힘내서 치과 다녀야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날까지 힘내야지! 화이팅!



잠깐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

E - 편한네방 모두가 편한네방^^

通 & up



-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가?
- 사회복지사로써 일한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가?
-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사회복지시설로써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가?
- 우리의 조직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변화를 위하여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재, 성촌의집은 고민하고 있다. 성촌의집 직원들이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에 시작일 것이다.

깊이 들여다보아야 했다.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나기 위한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 혼자가 아닌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공통 점을 찾아 문화로 자리매김하며 우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 했다.

우선, 우리의 조직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능동적인지, 피동적인지, 앞으로 가고 싶은지, 멈추고 싶은지, 생각들의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등 서로가 서로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과 고민의 시작선에서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했다.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문화만들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였다.

효율적인 팀워크를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해야 하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조직이란 무엇인가? 우리기관의 리더십이란 어떠한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조직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성촌의집 많은 직원들은 혁신을 원했다. 그리고 지금의 조직을 변화시킬 방법으로 소통을 원했다.

묵은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 혁신,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소통이 혁신(UP)과 소통(通)을 이뤄나가고 실천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선택하고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약속들은

通(소통)

- 동아리(볼링, 당구, 등산)를 통해 서로 친해지기
- 차 한잔 합시다(소통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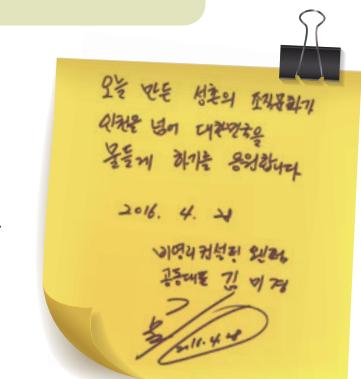
UP(혁신)

- 책읽는 모임을 통한 이해와 공감(한달에 한권 책 추천)
- 건강한 몸을 만듭시다

매달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계획하면서 직원들이 소통(通)하길 바라며, 혁신(UP)을 통해 변화하는 성촌의집이 되길 바란다. 사회복지의 가치의 실현을 문화로써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들이 빛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조직진단과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교육해주신 웰펌의 표경희, 김미경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通 & up
을 위한 성촌의집 화이팅!!



쉿!!

비밀스러운 외출

episode1 짧은 여행

심장이 뛰렸던 ‘짧은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촌의집에 오고 직원들과 몇 번 물건을 구입하러 나가보았고 다른 가족들과도 나가면서 혼자갈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시골에서도 길치가 아니었거든요. 물건을 사려 목적지로 향할 때는 룰루랄라 가서 물건을 사긴 했는데, 갑자기 여긴 어딘가?? 돌아가려는데 성촌의집은 안보이고 골목들과 가게들만 보이네요. 아뿔싸!! 그래도 가다보면 길이 나오겠지 하고 한참을 헤맸는데 길은 안 나오고 콧물만 왜 이렇게 나오는지 ~;;: 모르는 길을 왔다 갔다하니 힘도 들고 손에 들린 과자 한 봉지, 막풀, 색연필은 왜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고, 갑자기 “영희님 핸드폰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해요”라는 평소 직원들의 목소리가 제 귀가에 맴도네요.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다 큰 길 쪽으로 나와 하리를 펴고 한 숨을 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보니 아구~~ 반가운 얼굴이... 우리 직원의 얼굴이 나에게 100m 50m 10m 다가오더니 “영희님, 너무 걱정했잖아요, 몸은 괜찮으세요, 콧물도 흘리시고 많이 놀래셨나보네요, 못 찾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직 길도 모르시고 이곳은 주택가여서 길도 복잡한데 혼자 다녀오시면 어떻해요~” 아니 선생님, 숨 좀 쉬시고 말씀하시지... 그래도 날 생각하고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오늘 저는 큰 경험과 큰 기쁨을 얻었네요. 저의 한 시간 넘는 짧은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episode2 기막힌 외출

봄바람이 스치는 따스하고 나른한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중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정호님이 아침부터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는 찾아봤어요?’ , ‘아침에는 있었어요?’ 평소 외출을 좋아하시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돌아오셨는데...모든 직원은 한 순간에 초긴장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촌의집 주변부터 자주 가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만으로 찾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누군가 말을 했어요.

‘역에 자주 가니 전철을 타지 않았을까요?’ , 이 말에 역으로 가서 CCTV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CCTV는 보여 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관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인근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관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초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후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흐른 뒤 ‘여기 있어요!! 여기!!’ 영상을 보니 서울방향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각 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다시 성촌의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2시간...3시간...4시간...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던 중 자정 12시 쯤 성촌의집에 택시가 섰습니다. 지역주민이겠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호님이었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된거죠?’ , ‘서울 돈암동 쪽에서 택시를 타고 주소를 보여주며 가달라고 해서 온 겁니다’ ,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사님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퇴근도 못한 직원들은 이제야 웃음을 보이며 다행이라는 말을 연신 합니다. 밤하늘이 마치 화창하게 갠 낮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뭐하셨어요? 재미있었어요?’ 많은 말들은 하지 않고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물었습니다. 혼자서 다녀온 서울여행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기막힌 외출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별마을 메모리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 하는 선거!! 우리도 동참!! 인증샷은 필수ㅋ



따스한 봄날 야외에서 돗자리 펴고 간식먹는 기분 아시나요~?



취업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직업센터로 오세요. 취업을 지원합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은 건강검진 아니겠어요?ㅋ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성촌의집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절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절하는 방법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로 만들어보는게 어때요?
전 주인공 할거에요~!



나들이장소의 NO.1은 놀이동산아닐까요??ㅋㅋ 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놀이기구도 타고 꽃구경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인화회 | 2016년 05월 26일(목)

인화회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으로 성촌의집에 방문하여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배식하고 식사 후 식당을 땀을 흘려가며 청소까지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후원금 2백만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DK봉사단 | 2016년 04월 16일(토)

하나! 둘! 셋! 넷! 성촌의집 가족들과 함께 백운공원에서 산책 및 운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족분들과 알찬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동행



♥ 부평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 2016년 04월 23일(토)

성촌의집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면 힘든 일도 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하시는 ‘부평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물리치료실을 깨끗하게 청소 해주셔서 성촌의집 가족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

자원봉사 신청접수는 전화 · 홈페이지 · 방문 · VMS 등으로 해주세요~

- 처음 오신 봉사자는 ‘봉사활동신청서’를 꼭!!!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활동일지’를 작성해야지만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
- VMS(www.vms.or.kr)에 가입하셔야 활동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시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촌의집 소개와 봉사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 부평구 통장 모임 | 2016년 05월 12일(목)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부평구에 일이라면 앞장서서 일하시는 통장님들!! 성촌의집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학습
(수학, 영어 등)



운동
(배드민턴, 탁구 등)



IT교육
(컴퓨터, 인터넷 등)



여가활동
(춤, 노래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 4 리치프라자 4층

♥ 동암중앙치과

동암중앙치과에게 '성촌의집' 이란?

2014년 여름부터 성촌의집 가족들의 치과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치유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박한 현실에서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 가족이 있나요?

치과에 방문할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많은 대화를 하시려는 분입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으로 당황시키기도 하지만 항상 유쾌한 웃음으로 저희 치과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성촌의집 가족들이 몸은 조금 불편하시지만 밝은 모습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밝은 모습 잊지 마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희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성촌의집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아저씨는 지역사회에서
뒤에서 묵묵히 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시는 곳을 찾아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58 동암빌딩

♥ 벤엘약국

벤엘약국에게 '성촌의집' 이란?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을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촌의집의 노력을 통해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 가족이 있나요?

약국에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해맑은 모습을 보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마 사랑을 듬뿍 받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성촌의집 모든 직원이 지금까지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늘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소중하며 귀하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근무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성촌의집! 화이팅!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행복더하기



후원물품을 찾습니다.
(가정용 청소기)

아름다운 습관~ 행복한 나눔^^

피겨선수 김연아가 필리핀 구호기금으로 10만달러를 기부하고 배우 하지원이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1천권의 책을 기증하였으며 배우 한효주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자막해설 녹음을 하는 등 유명인들의 나눔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우리들도 유명인들처럼 나눔 실천 어렵지 않아요~

기존의 있는 대형 청소기 1대, 가정용 청소기 1대. 성촌의집 가족들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청소기도 부족하고 무거워 사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성촌의집 가족에게 성능 좋은 청소기를 후원해주세요. 진공청소기처럼 빠른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n

물품후원 시 해당되는 가격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연말에는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똑똑한 채테크 누려보세요~~



쌩쌩한 가정용 청소기 7대!!

별마을 이웃사촌-동그라미 봉사단



동그라미 봉사단은...

- 구성원 : 총 15명 (회장 오현주, 고문 최계한, 감사 나태현, 총무 김입분) • 성촌의집과의 인연 : 2013년 12월
- 활동시간 : 매월 2째 주 일요일 • 활동내용 : 영화 관람, 노래방 이용, 체험활동 및 나들이 등



동그라미봉사단 회원들은 여러 시설 및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촌의집 자원봉사는 회원 한분의 소개로 시작되어 오늘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나들이, 시설 앞에 위치한 악산 산책, 영화감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노래자랑과 나전칠기체험, 꽃 볼펜 만들기는 즐겁게 함께 하였고 특히,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와 함께 서울대공원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가족분들이 자연 및 동물과 함께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동그라미봉사단 또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2016년에는 모듬 북공연, 플레이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성촌의집과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면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마을 가족여러분 사랑합니다.



후원자 명단 (2016.02.16.-05.31.)

+ 비지정후원금

개인 : 고종원(동남스포피아), 김경진, 김덕진(건강길약국), 김수진, 김용애, 김현보, 박점숙, 신진자, 유계월, 윤창호, 이미복, 이향란, 정민영, 정현주, 조명규, 조성란
 단체 : 교촌에프앤비(주), 국민은행동암자점, 아프로파이낸셜 구월지점, 오내친구 성폭력상담소, 익산유압, 인천중앙감리교회, 푸드마스

CMS : 김민정, 김인수, 김현경, 김현수, 박미정, 변문수, 소형순, 손대원, 상정중
 우리들봉사단(신미옥), 윤우석, 이구형, 이은주(성존의집), 이은주(부평우체국), 정금자, 정민호, 정웅택, 정찬식, 조광매, 조근태, 조성숙, 조성순, 조성욱

+ 지정후원금

이용자결연후원금 : 유정운, 이은주, 임미정

+ 후원물품

개인 : 김용애(모종 등), 북인천세무서(음료), 이미복(커피 등), 이명식(의류 등), 이은주(영화관람), 이향란(과일 등),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쌀), 인화회(식기세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운동화), 현도명(고기 등)
 단체 : 교촌에프앤비(주)(치킨), 까레몽케이크삼산점(케이크), 라성약국(구충제), 사랑나눔봉사단(식식식재료), 시흥모터스(차량수리), 인천농수산물주식회사(김치재료), 주안8동성당(달걀), 크롬(빵류), 파리바게뜨간석오거리역점(빵류),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태양봉사단(중식식재료)

+ 후원모금함 현황

-부평우체국(동암우체국, 부평6동우체국, 부평공단우체국, 부평대로우체국, 부평현대아파트우체국, 북인천우체국, 산곡2동우체국, 인천갈산동우체국, 인천부개동우체국, 인천삼산동우체국)
 -24시콩나물국밥, 건강길약국, 라성약국, 벤엘약국, 부성해물탕, 석바위어린이책, 시흥현대모터스, 이천쌀밥설악추어탕, 치우차이, 혼헤어뉴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보고 (2016.01.01.-05.31.)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4,611,400	여비	299,320
비지정후원	10,537,660	수용비및수수료	1,063,290
접수입	2,613	공공요금	76,380
전년도이월금	30,267,917	제세공과금	1,160,000
		차량비	184,950
		기타운영비	2,853,100
		시설장비유지비	709,050
		수용기관경비	337,000
		연료비	8,592,720
		의료재활사업비	48,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540,030
		영양관리사업비	212,000
		지역자원연계사업비	639,800
		인원사업비	300,000
		체험홈운영비	31,200
		이월금	27,372,750
합계	45,419,590	합계	45,419,590

자원봉사자 명단 (2016.02.16.-05.31.)

개인

김다솔, 강다솔, 김명숙, 허예진, 남기택, 노현우, 강민형, 김성현, 윤민희, 최소정, 유정윤, 김성현, 고은서, 김도영, 김진, 김민상, 노현우, 강경준, 한성진, 이준서, 고은서, 강다은, 김태우, 이성빈

단체

우리들봉사단(상정중) : 음식만들기,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신미옥 단장, 나승진, 박상은, 안형진, 정수연, 유나경, 김호주, 강건주, 이은서, 이지원, 이선용, 이윤진, 윤수현, 조영순, 김호연, 정미자, 김영재, 임정연, 박미영, 김순애, 김이수, 김지수, 김지우, 김형진, 최제옥, 이인숙, 김경춘, 김민교, 임자영

태양봉사단 : 종식봉사

이명식 회장, 이영호, 김지환, 김춘숙, 김지영, 김정은, 심명임, 나영복, 김미정, 김미옥, 장정옥, 이정임, 소영희, 박정순, 황순희, 김영분, 황세동, 윤현준, 이재훈, 황봉숙, 김용자

사랑나눔봉사대 : 석식봉사

이종서 회장, 이빛나, 김연숙, 정연화, 서금자, 윤하늘, 전성우, 전서현, 진학일, 정정미, 송변한, 김순옥, 윤수현, 권지선, 권지연, 김지연, 구연순, 차승진, 이판기, 신경희, 김재숙, 오경택, 모윤숙, 이다민, 박남숙

부평우체국 부평지기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영화관람)

김철 부단장, 김은솔, 심현지, 박종화, 유병갑, 유혜현, 이수일, 김인수, 김인수, 조선영, 김경태

동그라미봉사단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여가활동)

오현주 회장, 김오분, 임충후, 윤계림, 이재웅, 김숙영, 정나나, 방춘옥, 나태현, 김인선, 김입분

상정고등학교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운동프로그램)

이채원, 김민상, 이진행, 윤이삭, 최선민, 이태현, 김형근

DK 도시개발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산책)

조재만, 김옥태, 김형남, 김정태, 임지욱, 김효중, 배성철, 나봉균, 나경만, 이재봉, 김호중, 이태현, 김진성, 최은희, 이성현, 김윤석, 이나라, 차미림, 김란은, 이진주, 이해진

인천대학교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운동프로그램)

임덕순, 박동규, 심상교, 임규환, 김효순, 김선자, 이일심, 정순자, 김영희

누리보듬봉사단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나들이)

고애서, 안영란, 김숙영, 장은화, 박홍규, 박정원, 김미정, 신철균, 정용구, 이예림, 이용주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제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증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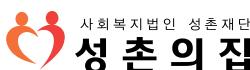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별마음이야기 2016년 두 번째 호 (통권15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권소진, 김기철, 손은정, 유성우,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헬事儿,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좌석버스 : 동임북부역 하자 103번, 악사사 입구 하자 111번

마을버스 : 531, 533, 535-1, 536, 537, 538(남부역하차)

시내버스 : 2, 30,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입구,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임남부역 1번출구 하차

인천선 : 간석오거리 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 하차

